



JUNE 2025

VOL. 278

▲ 인기 밴드 보이그룹 캐치더영이 개교 73주년 기념 축제의 초청 아티스트로 출연했다. 멋진 선율로 학우들과 교감하며 5월의 감성을 지퍼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KÓKKOS 6

개교 73주년 기념 감사예배

최태준 목사, '한 알의 밀'(요 12:24~25) 설교

성서선교회 1천만 원, 총동문회 700만 원 후원

개교 73주년(1952~2025) 기념 감사예배가 13일 11시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최태준(38회, 남포교회) 목사가 '한 알의 밀'(요 12:24~25)로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주님은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인 '죽음'이 일하는 원리로 일하신다. 그분은 죽음을 뚫고 생명을 창조하였으며 죽음이 많은 열매와 함께 주의 역사를 위대하게 만든다. 모두가 주의 부름에 따라 말씀 그대로 썩고 죽는 밀알의 삶을 이뤄내는 성서공동체 되어

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최정권 총장이 우리 대학은 3가지 양식을 제공해 왔다. "첫째, 채플을 통한 영적 양식이다. 학우들은 자신의 변화를 간증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둘째, 강의실 전공 양식으로 학우들은 전공 교육 만족도가 가장 높다. 전문 지식은 복음 전도에서 매우 중요하다. 셋째, 양질의 식사 제공으로 돈이 없어 점심 못 먹는 학우가 없도록 한 끼 7백 원, 반값 식사비 등을 확장해 가겠다. 하나님께서 이 대학을 설립한 목적답게

굳건히 걸어갈 것"이라며 인사하였다.

김경호(30회, 삼일성서교회) 목사가 73년간 지켜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학우들이 주의 복음전도자로 새로나기를 기도하였다. 윤두태(27회, 가성교회) 목사가 축도해 주었다. KBU찬양팀은 '은혜' 곡을 멋진 화음과 선율로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성서선교회(총회장 현희철 목사)에서 1천만 원, 총동문회(회장 윤두태 목사)가 7백만 원을 후원하며 학교 사랑의 모습을 전했다.



▲ 말씀을 전하고 있는 최태준 목사



▲ KBU찬양팀이 '은혜' 곡을 멋진 화음과 선율로 부르고 있다.

박태수(성서), 김희수(사복) 교수

개교 73주년 20년 장기근속자 포상



▲ 20년 장기근속자 포상식(왼쪽부터 강우정 이사장, 박태수 교수, 김희수 교수, 최정권 총장)

최정권 총장은 개교 73주년을 맞아 20년 장기근속한 박태수(성서학과), 김희수(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근속감사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수상자들은 지난 2004년 전임교원으로 임용돼 제자 양육에 헌신해 왔다. 교수회와 우리회에서 수상을 축하 꽃다발로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개교 73주년 밀알축제 With총학생회 주최

“맘껏 즐겼노라!
지금이 바로 청춘이다”

개교 73주년을 맞이하여 With총학생회가 주관한 밀알축제가 'With Youth 함께여서 청춘이다'를 주제로 펼쳐졌다.

잔디마당을 따라 동아리와 학회에서는 먹거리와 각종 음료를 판매하며 이미지 홍보에 열을 올렸고 요소요소에 각종 악세사리와 소품류들도 시선을 붙잡았다. 포토 존과 리플레쉬 존을 비롯해 게임 존과 플라마켓 그리고 푸드마켓 등으로 축제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2시부터 모리아관 앞 무대에서는 학우들의 숨겨진 끼와 장기를 겨룰 장기사랑대회가 진행됐다. 아마추어를 뛰어넘는 가창 실력에 학우들은 환호했고 폭발력 넘친 밴드팀의 멋진 화음, 피날레를 장식한 댄스동아리 AWP팀의 칼군무 또한 단연 압권이었다.

뒤이어 가장 관심을 끈 초청아티스트 무대. 감성적 가사에 랩 스타일로 MZ들로부터 크게 사랑받고 있는 김승민과 서정적인 가사와 개성적 멜로디의 우디, 다재다능한 밴드 보이그룹 캐치더영이 등장해 자신만의 음악적 캐릭터와 선율로 학우들과 교감하면서 축제는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다. 5월, 청춘들의 흥과 끼와 낭만이 푸르르게 녹아든 신명의 한마당이였다.



▲ 미니스티커와 장식 메모장 등의 소품류



▲ 사회복지학과 누리학회팀이 운영한 부스



▲ 잔디마당에 마련된 부스를 방문하는 학우들

대학원 개교 73주년 기념 예배

안기성 목사 설교
'밀알정신으로 사역하라'(빌1:1~11)

대학원은 12일 저녁 로고스홀에서 개교 73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다. 안기성(인천 빛의교회) 목사가 '밀알정신으로 사역하라'(빌1:1~11)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분명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신뢰해야 한다. 사역에서 중요한 건 사람에게 대한 집중과 사명감이다.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해 갈 것을 당부했다. 비전이 미션이 되고 열정을 넘어 헌신을 감당하라"고 설교 하였다.

최정권 총장은 권면을 통해 "힘든 이민 목회를 견뎌낸 동력은 신학자 유진 피터스의 '교인들은 적이 아니며 목회 사역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정복해야 할 적국 사람이 아닌 에너지와 유기물 가득한 토양과도 같다. 이후 경외심과 겸손, 사랑의 마음으로 교인을 품었다"며 모두가 꾸준히 즐기고 배워서 값진 결실을 거두라고 말하였다.

예배 후 안 목사의 진행으로 '밀알정신으로 열방을 보라' 주제의 세미나가 이어졌다.



▲ 안기성 목사

4학년 주관 예배 5월 19일부터 2주간

“서로를 밝혀주는 등불의 공동체 되자”



▲ 남현모



▲ 김병운

2025학년도 1학기 4학년 주관 예배가 5월 19~30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19일, 남현모 학우(성서 4)가 ‘쇼함’(막12:41~44)에서 “본문은 부자와 가난한 과부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헌금에 관한 내용이다. 가난한 과부의 초라한 두 렵돈이 그의 생활비 전부였지만 예수님은 과부의 후하고 희생적인 헌신을 높이 샀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가치는 양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을 말한다. 학교에서 매일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다. 나의 만족과 유익은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 온 맘을 다한 예배자로 참여하는 것이다. 모든 걸 다 드린 과부처럼 신실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말하였다.

29일, 김병운 학우(AI 4)는 간증에서 학교 입학 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 의심치 않기와 등록금 걱정 없는 졸업. 여기에 학과 전과를 목표로 노력했으나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 이를 본 간호학과 친구는 “네가 주체가 되면 불안해져, 주님께 다 맡기고 그냥 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봐” 주님의 음성처럼 깊이 와 닿았다. 이후 말기는 삶을 실천하였다. 결론은 등록금 문제와 전과, 견고한 신앙까지 다 응답을 받았다.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붙여준 동기와 선후배가 있다며 서로를 밝혀주는 등불로 함께 가자고 소망하였다.

4학년 주관 예배의 간증, 설교자, 설교 제목은 다음과 같다.

- 1 주차 -

- 19일(월) ▲황주찬(사복) ▲남현모 ‘쇼함’
20일(화) ▲송민희(사복) ▲김효선 ‘주님의 시선, 아버지의 뜻’
21일(수) ▲이해별(사복) ▲최지승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22일(목) ▲이진우(사복) ▲김준석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23일(금) ▲이예은(영보) ▲이서현 ‘알고 보니’

- 2 주차 -

- 26일(월) ▲김명희(영보) ▲박예인 ‘이게 계획이라면 좀 그렇잖아요’
27일(화) ▲손호빈(AI) ▲강준구 ‘여리고성 함락 : 믿음이 만든 기적’
28일(수) ▲이한수(AI) ▲황광민 ‘피난처’
29일(목) ▲김병운(AI) ▲임주만 ‘내 길의 빛이 되시니’
30일(금) ▲이민규(AI) ▲배준협 ‘불쌍히 여기서’

올해 2월 졸업자 취업률 39.1%

취 · 창업지원센터
“최대한 끌어 올리겠다” 다짐
작년 동기 대비 3.6% 하락

취·창업지원센터(센터장 문지예)는 올해 2월 졸업한 동문들의 취업률은 5월 30일 현재 39.1%라고 발표하였다. 전년도 같은 시기의 취업률 42.7%보다 3.6% 하락한 수치이다.

전체 졸업자 203명 가운데 취업 68, 미취업 106, 진학 26, 기타 3명이다. 학과별 취업은 성서 5명(16.7%), 사복 11명(30.6%), 영보 26명(83.9%), 컴소 14명(50%), 간호 12명(24.5%)이 취업하였다. 간호학과는 취업이 확정된 13명이 대기 중이며 성서학과는 18명이 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68명이 구직활동 중이며 이밖에 창업 및 자영업 준비, 공무원 시험, 진학과 입대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문지예 센터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각 유형에 적합한 취업 정보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하반기는 환경이 다소 나아질 것 같다”며 “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취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취업에 관한 문의 : 950-5525(취·창업지원센터)

“모든 과정이 행복이고 감사요 은혜이다”

학교 발전을 위해 “정체성에 대한 당당한 자긍심”필요

36년의 긴 세월을 경동 KBU맨으로 헌신해 온 오윤선(기초교양교육과) 교수가 25-1학기 말에 정년 퇴임한다. 1980년 신입생으로 대학에 발을 들인 이래 45년 간을 학생과 교수로 성서캠퍼스에서 대학과 삶을 같이 했다.

오 교수는 본교 졸업 후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청소년지도학), Minnesota Graduate School of Theology에서 상담학박사를 취득하였다. 본교 재직중 취업정보센터장과 기획실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등 중요 보직을 수행해 왔다. 복음주의 상담학회 회장과 경찰청, 법무부 자문 위원을 비롯 외부 활동도 활발히 하여 학교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전공 관련 연구논문 65편과 50여 권의 전공서와 교양서를 저술하였다.



▲ 오윤선 교수

Q. 정년 퇴임 소감은?

“36년을 KBU 품 안에서 보냈다. 돌아보니 모든 과정이 행복이고 감사요 은혜다. 내게 우리 학교야말로 신앙과 학문 인격의 근본을 창출시켜 준 인큐베이터며 고향과 같은 곳이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

Q. 재임 중에 가장 기억되는 순간과 안타까운 기억이 있다면?

“1996년 종합대학교로 정식 인가받던 순간과 대학원에 상담학 전공 석박사 과정의 개설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반대로 설립자 강태국 박사와 강희정 학장의 소천은 너무도 안타깝게 남아있다. 강 박사는 내 신앙의 근본 줄기와 뿌리를, 강 학장은 학문의 베이스와 확장성을 눈뜨게 해 준 거목이요 큰 스승이다.”

Q. 성서대학의 강점과 약점을 꼽는다면?

“성서에 입각한 복음의 능력 추구야말로 최고의 강점이다. 우리만의 당당함과 용기, 폭발적 에너지와 확장성이 큰 자랑이다. 반면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간의 배려와 나눔 따뜻한 이해와 관용이 서로를 다독여 줄 때 주의 공동체로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Q. 성서대가 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해야 할 점은?

“긴 안목으로 보면 학교의 정체성을 고수하고 이를 유지하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모교 출신 교수들이 좀 더 있었으면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라도 KBU 존재 목적에 대한 구성원들의 분명한 소명의식과 학교 정체성에 대한 당당한 자긍심이 더하여지도록 리더 교육과 훈련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리더들은 일관성 있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고 이 과정들이 곧 학교 사랑에 대한 전방위적인 선순환으로 이어질 거라고 본다.”

Q.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을 당당하게 세워라. 말씀에 사로잡힌 베이스만큼은 절대 놓지 않아야 한다. 그 위에 최상의 전공 실력은 필수조건이다. 거침없이 도전하는 실천자가 되라. 주님은 여러분을 강한 자로 이끌어 줄 것이다.”

Q. 은퇴 후 계획은?

“물리적 장소만 이동할 뿐이다. 그동안 해 온 연구와 저술 활동을 지속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고 정진해 나갈 것이다.”

2025년 서울시 RISE 사업 미 선정

선정된 일반대학 26개교
모두 대형대학
강규성 단장
“미 선정 이유 면밀하게 검토,
다음을 기약”



서울시가 RISE 사업수행 대학으로 일반대학 26개교와 전문대학 9개교를 선정했다고 5월 20일 발표했다. 일반대학 26개교는 대형대학으로 우리 대학은 아쉽게 미 선정됐다.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이하 서울 RISE)가 이번에 공모한 사업은 4개 프로젝트, 11개 분야로 우리 대학은 ‘지역현안문제해결’ 분야와 ‘서울 미래키움 교육지원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 각각 1개 과제와 ‘서울 평생교육 고도화’ 분야 1개 등 총 3개 과제를 제안했었다.

서울 RISE는 미 선정 이유로 ‘지역현안문제해결’ 분야의 사업계획안은 과제의 선정 근거 부족, 노원구와 연계의 구체적 계획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서울 미래키움 교육지원 생태계 구축’ 분야는 서울(문화, 예술, 역사, 생태계 등)을 담은 융합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아 1순위로 선정하였으나 기존 늘봄학교의 한계점 및 개선점을 분석한 근거가 부족하였다고 평가했다. ‘서울 평생교육 고도화’ 분야는 우리 대학의 장기적 발전계획과 서울 RISE 기본 계획의 비전을 연계한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단위 과제의 성과 창출 방안 및 전략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아쉬움을 지적하였다.

강규성 RISE 사업단장은 “이번 미 선정으로 구성원들에게 실망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유를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 다음 기회에는 꼭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였다. 최정권 총장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위원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였고 위원들의 노력에 동참하였다. 그래서 이 시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잘 싸웠다”라고 말했다.

서울 RISE사업에서 가장 많은 과제에 선정된 대학은 성균과대다. 총 6개 과제를 따냈다. 서울대 국민대 세종대가 각 4개, 고려대 연세대 등 8개 대학이 각 3개다. 선정된 26개 대학에 지원될 예산은 477억 원이다. 선정 대학 중 지원액 50억 원 이상 받는 대학 1개, 40~49억 원 1개, 30~39억 원 4개, 20~29억 원 6개, 10~19억 원 8개 대학이고 10억 원 미만은 15개 대학이다.

공모에 선정된 26개 일반대학 중 22개 대학은 학생 수 1만 명 이상의 대형대학이고 나머지 4개 대학도 7천~9천으로 1만 명에 육박하는 큰 대학이다. 서울 소재 54개 대학(전문대 포함)이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였고 사업 경쟁률은 3대 1이었다.

법인 25-3차 이사회

6월 16일 밀알관 회의실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2025년 제3차 이사회가 6월 16일 오후 3시 밀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회의 안건은 개방이사 선임,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추경안과 직원 인사규정 개정안 등 4개의 규정 개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사회에 앞서 ‘학교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보고서』 제출 학생과 교수자의 역량 강화에 집중

**“학생의 성장을 위한
모든 필요에
모두 응답한다”**



우리 대학은 지난 5월 27일 『2025-2027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보고서』(이하 성과평가보고서)를 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였다. 보고서는 2주기(2022-2024)에 수행한 대학혁신사업 성과와 함께 3주기(2025-2027년)에 수행할 혁신사업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25년도 계획에는 학생의 성장을 위한 모든 필요에 모두 응답한다는 의지를 심었다.

3주기 주요 교육혁신사업은 밀알인재형 교양교육 혁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NSLB 진로교육체계 혁신, 교수역량강화 체계혁신, 학생 친화적 교육환경 혁신의 5대 전략과제로 정했다. 이 과제들은 대부분 2주기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이를 고도화하고 체계화시켰다.

교양교육 혁신사업의 대표적인 과제는 캠퍼스형, 캠프형 공동생활을 통해 공동체 의식, 소통능력, 섬김의 의지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영성 향상과 단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융합형 인재 교육과정 혁신에는 다전공제 확대, 나노디그리 교육과정 추가 개설, 학생-교수 공동연구 확산 등 의욕적인 설계와 실행 계획이 담겨 있다. NSLB 진로교육체계 혁신 계획에는 학생들의 심리, 진로, 학습, 취업을 한 줄기로 이어 학생 필요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구를 통합 개편하고 21종의 NSLB 학생맞춤형 프로그램을 촘촘히 개설하였다. 교수의 역량강화 과제는 BETTER+교수자 지원체제 고도화 계획으로 역량유형을 세분화했다. 스타강사형, 학습멘토형, 디자이너형 등으로 구체화하고 연수프로그램을 온·오프 혼합방식으로 운영하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성과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는 6월 18일 대면평가 진행 후에 S, A, B, C 로 등급이 매겨 7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액수에 큰 차이가 있다. 구성원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요구된다.

대학원 후기 신입생 모집 원서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대학원(원장 조혜경)이 후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과 사회복지대학원, 신학대학원의 신입생을 각각 약간 명씩 뽑는다. 원서는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접수한다. 면접고사는 7월 8일이며 시간은 개별 고지한다. 신학대학원은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필답고사가 있다.

입학에 관한 문의는 대학원 교학처 02-950-5456. grad@bible.ac.kr

1 학기 성경 졸업고사 53.3% 합격

2025학년도 1학기 성경 졸업고사가 31일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174명이 신청하고 152명(87.4%) 응시한 시험에서 81명(53.3%)이 합격하였다. 지난해 1학기의 졸업고사 합격률 66.9%에 비해서 -13.6% 하락한 결과로 아쉬움을 남겼다.

4학년 학우들은 대상자 55명 중 30명이 응시하였는데 합격자는 13명(43.3%)이다.

2학기 성경 졸업고사는 오는 11월 15일(토)에 있다.

밀알캠프, 청소년, 어린이 각 120명씩 모집

성서선교회와 지역 동문 교회 대상
모두 무료

여름방학 기간(7월 28~ 8월 1일까지)에 진행될 밀알캠프(청소년,어린이)가 한국 성서선교회 산하 교회와 동문 교회, 지역 교회의 청소년, 어린이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일정은△청소년 7월 28~30일 △어린이 7월 31~8월 1일까지이며 인원은 청소년 과 어린이 각 120명씩, 신청 마감은 6월 9일이다.

참가비는 없이 모두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며 지방에서 상경한 인솔자에게도 동일하다. 밀알캠프는 2003년 청소년을 첫 시작으로 이듬해 어린이 캠프를 개설해 이어 오다가 코로나 기간에 중단되었고 2023년 재개됐다.

교목실 김창현 목사는 “본교 재학생들의 순수한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캠프는 미래 세대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비전을 공유하여 준비된 밀알로 거듭나도록 돕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밀알캠프 참가 문의 : 교목실 김창현 목사(02-950-5439)

제11회 도서관 전자박람회



▲ 서울정보시스템에서 학술 정보를 상담하는 학우들

도서관(팀장 최지은) ‘제 11회 도서관 전자박람회’가 29일 고승태홀에서 개최되었다.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서울정보시스템 등 6개 업체가 참가했다. 대학 구성원인 학우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최신 학술정보 자료 검색과 연구력을 높여주기 위한 자리로 흥미로운 이벤트와 진행해 큰 호응을 불러왔다.

현장의 각 부스에서는 학술과 관련된 최신 자료를 주제로 검색과 상담을 나눴고 학우들은 전자책과 이러닝 서비스 체험을 비롯, 정보검색과 학술 DB 활용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경품 추첨 행사에서는 갤럭시 워치, 블루투스 스피커, GS25 편의점, 맥도날드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나누어 주었다. 학우와 교직원 240명이 참여하였다.

‘Impact!’와 ‘코모도키’ 팀 선정

2025 KBU Global Challenge

취·창업지원센터의 2025 KBU Global Challenge 참여자 모집에서 ‘Impact!’와 ‘코모도키’ 2팀이 최종 선정되었다.

컴소학과의 Impact!팀(팀장, 한기준 2)은 글로벌 취업을 위한 독일 IT산업 현장 탐방을 주제로 4명이 10일간 활동을 갖는다. 독일 뮌헨 지역 소재 정보 관련 기업을 견학하면서 인턴 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영보학과의 ‘코모도키’팀(팀장, 추소원 3)은 일본의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중심의 놀이, 보육과 미래 구상을 주제로 5일간 탐방에 나선다. 오사카와 도쿄 일원의 대학과 어린이집을 방문한다.

이번 2025 KBU Global Challenge는 6개 팀이 신청하였으며 6인의 운영위원들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참여자들은 1인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선발된 팀과 팀원은 다음과 같다.

Impact! ▲한기준(팀장 2) ▲곽현우(컴소4) ▲마다현(컴소3) ▲신정은(컴소3)

코모도키 ▲추소원(팀장3) ▲김서현(영보3) ▲박찬주(영보3)

▲변해원(영보3) ▲이설인(영보3) ▲지원경(영보3)

무명의 학부모 발전 기금 1천만 원 후원

익명을 요구하는 학부모가 학교 발전에 사용해달라며 1천만 원을 후원하였다. 후원자는 “자녀가 성서대학교에 대한 만족감이 매우 높아 부모로서 그저 감사하여 후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그동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움직여 주셨다”고 덧붙였다.

행복한 대학을 꿈꾸며...



최정권 총장

먹는 데 진심인 제 습관은 총장이 되고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목회할 때보다 좀 더 진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맛집을 소개하면 꼭 한번 가보고 맛있으면 다시 갑니다. 그렇게 세 번 연속 맛있으면 제 마음에서 맛집으로 인증을 찍습니다.

요즘 제 마음의 맛집은 학교 식당에 있습니다. 매달 채워야 하는 식수를 위해 총장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의무감도 있지만 저에게는 식당 밥맛이 외부 지인을 대접할 수 있는 맛집이 되고 있습니다. 꼭 외부에서 접대해야 할 이유가 있는 손님이 아니라면 아예 초청할 때 우리 학교 식당을 소개하고 학식을 함께 먹게 될 것이라 공지하고 모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맛집은 단순히 밥이 맛있는 장소가 아니라 공감을 불러 일으켜 줄 이야기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부가 있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두부 없는 순전한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할 수 있고 된장국에 들어있는 잎이 연한 아욱을 먹으며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맛집일 겁니다.

우리 학교 식당은 대량으로 끓여내는 국물이라

는 걸 감안하고도 제 입맛을 놀라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 “정우푸드는 상을 받아야 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짜고 매운 정형화된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도시락 아닌 건강을 생각하고 만든 식당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학생들에게 밥을 떠주는 일입니다. 주격을 들고 줄을 선 학생들을 보면서 밥? 많이 조금?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좌판에 밥을 퍼서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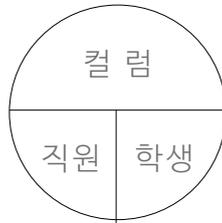
“총장님 저는 조금이요? 저는 오늘 많이 주세요?” 가장 어려운 주문은 적당하게 달라는 겁니다. “총장님 저는 적당히...” 학생 눈빛이 총장의 시선과 밝게 겹치고 총장 얼굴에 웃음이 퍼지면 그게 맛집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맛집은 음식의 맛을 넘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잘 통하는 곳일 겁니다.

총장인 저는 오늘도 우리 학생들을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싶습니다. 학교가 맛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만나와 강의실 만나 그리고 식당의 만나가 어우러져 잘 먹고 자란 학생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교정이 되기를...

총장의
편지



박예진 연구원(교수학습센터)



심원영(사복3)

함께하시는 하나님

스무 살, 기독교 대학에 입학하면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누구의 권유도 아니었다. 어느 날 채플에 참석하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집에서는 신앙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다. 아버지는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셨고, 나는 갈등을 피하고 싶어 조용히 믿음을 지켜왔다. 그러던 중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동생이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다고 했다. 학교에서 예수님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너무 놀랐고 기뻐했다. 같이 교회에 가는 시간이 참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연성이 높아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아빠와 동생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다. 아빠는 “예수님은 죽었어. 그러니 존재하지 않아.” “아빠, 잘 모르는구나?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셨어. 그러니 지금도 살아계셔.” 동생은 놀랍도록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말하고 있었다. 아빠와 부딪히는 것이 싫어 늘 피하기만 했던 나와 달리, 어린 동생은 믿음을 말하고 있었다. 그런 동생이 너무나 멋져 보였다.

그러나 그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신앙이 서서히 식어갔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안타까운 말을 하기도 했다. 동생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대학생이 된 동생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다.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고 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야 마음으로 느껴진다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스무 살이 떠올랐다. 나 역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동생과 똑같은 고백을 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순간에도 분명히 함께하고 계셨다. 그리고 지금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어쩌면 동생과 나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을 기억하게 해 주는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나만의 속도로 하루를 보내는 경험

여러분은 혼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는 등의 활동을 혼자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함께하다 보면 온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하루를 채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루를 혼자 보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혼자 명동에 다녀왔습니다. 평일 낮이라 거리는 한산했지만, 혼자서 유명 관광지에 가는 것은 처음이라 그 시간이 무척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을 준비하며 여러 옷 가게를 둘러보고, 요즘 꼭 빠진 포케를 먹기 위해 웨이팅도 해보았습니다. 어울리지 않게도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 들어가 사색을 즐기며 책도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치 '저 사람은 왜 혼자일까?'라는 질문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고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하루를 보내는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소중한게,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함께하는 것만이 즐거움을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혼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는 이유로 망설이고 있다면, 한 번쯤은 용기 내어 나만의 특별한 하루를 보내보시길 권합니다. 때로는 혼자기에 더 특별하고, 깊이 있는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세호의

목양칼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한국성서대학교와 성서대학교교회

하나님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 가운데 강태국 목사를 통해 대학을 세우는 꿈을 주셨습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오직 복음에 있음을 믿고 전국복음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문안교회를 담임하던 1952년 5월 13일 교회 방 한 칸을 시작으로 '한국성서학원'을 시작했습니다. 첫 입학생은 7명, 기숙사는 사택을 사용하며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 '나의 증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학의 설립자는 하나님 자신이다." "학장은 예수님이시다." "교과서는 신구약 성서다." 그리고 1956년 3월 2일 한국성서학교 강당(당시 삼청동 소재)에서 강태국 목사는 새로운 꿈을 꾸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첫째, 성서적인 초 교파 독립 교회로서 교권 투쟁과 분열이 없는 순수한 복음적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1953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기장과 예장으로 분열되는 것에 앞장서서 반대했던 강태국 목사는 이것이 이 땅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바른 교회 상이라고 믿었습니다.

둘째, 이와 같은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져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현재 은평구에 소재한 중앙성서교회입니다.

불광동에서 이곳 상계동으로 학교의 터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1988년 9월 10일 성서대학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 한국성서신학교 강당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처럼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서대학교회와 우리 대학을 통해 계속해서 진리의 파수꾼들을 배출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따라 복음을 들고 걸어가길 하나님의 인재들이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의 명칭은 교육부 인가에 따라 한국성서학원(1952)으로 개교하여, 한국성서학교(1955), 한국성서신학교(1983), 한국성서대학교(1996)로 변천 되어왔다. [편집자]

임경미의 토닥토닥시 131

콩알 하나 김준태

누가 흘렸을까
막내딸을 찾아가는
다 쭈그러진 시골 할머니의
구멍난 보따리에서
빠져 떨어졌을까

역전 광장
아스팔트 위에
밝히며 뒹구는
파아란 콩알 하나

나는 그 엄청난 생명을 집어 들어
도회지 밖으로 나가
강 건너 밭이랑에
깊숙이 깊숙이 심어주었다.
그때 사방팔방에서
저녁노을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역전 광장 아스팔트 위로 파아란 콩알 하나 밝히며 뒹굴고 있었다. 콩알 하나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화자는 그 콩알 하나를 주워 도회지 밖으로 나가 강 건너 밭이랑에 깊숙이 깊숙이 심어주었다. 콩알 하나의 엄청난 생명력을 알아본 소중한 마음, 그로 인해 콩알 하나는 수백 수천 수만의 콩알이 되었다.

건물 모퉁이 외진 곳, 담배꽂초 받기가 되어버린 조그만 화분 하나, 담배꽂초로 범벅이 된 쓰레기 틈 사이로 새싹 하나 빼꼼 올라오고 있었다. 담배꽂초를 걷어내고 정성껏 물을 주었다. 햇빛을 먹고 바람도 맞으며 싹은 날마다 건강하게 자랐다. 점점 모습 갖추며 주황빛 꽃봉오리를 맺더니 마침내, 꽃을 피웠다. 여섯 꽃잎, 여섯 개의 수술, 한 개의 암술이 하늘을 향해 힘껏 포효했다. 멸종위기종 2급 날개하늘나리였다.

버려지고 잊혀져 쓰레기 더미가 될 수도 있었을 생명,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오월의 축제 이월중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57호



총장실 창가에 서서 5월 축제를 바라보면서 생각이 난 그림이 제주에 정착한 이월중의 이 그림입니다. 제주의 일상생활을 시리즈로 그린 그림의 하나인 이 그림에서 배우고 얻은 단어가 자유와 즐거움입니다.

특히 화가의 자유로움을 느낀 건 오른쪽이었습니다. 원을 따라서 있던 사람들이 누운 형태로 그려진 모습을 보면서 규칙과 그 규칙을 넘어서는 자유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화가의 영감은 잘 짜인 규칙 안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부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듯 경이로운 어떤 신적인 흔들림이 마음에 스칠 때 규칙을 넘어선 자유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원을 따라서 있는 사람을 그리다가

오른쪽에 이르러 나뭇잎을 흔든 자유의 바람이 화가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누워야 다 보여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에 과감하게 눕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면 스티븐 킹의 말처럼 그려진 인물들이 서로 교감하는 사이에 스스로 누워 버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설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는 선택 대신 아예 누울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삶을 풍요롭고 즐겁게 해 줍니다.

학교 교정에 흐르는 음악과 학생들의 노래 그리고 함성을 들으며 학생들이 그들의 삶을 만족해하고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오후의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직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어린이집

심폐소생술 교육

3월부터 교직원들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의 생활 공간이라서 안전을 최선 과제로 인식하며 특히, 생명과 직결된 응급상황에는 교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교육은 매년 1회, 온라인교육 이론 2시간과 노원구청이 실시하는 실습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내용은 전화 도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 충격기(AED), 기도폐쇄 응급처치로 진행된다. 대학어린이집의 교직원들은 정기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꾸준히 키워나감으로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밀알반 교사 고은아]

오동준 관장이 어르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어버이날인 8일부터 이틀간 무료 급식 어르신 310명에게 감사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정성이 담긴 특식과 다과로 풍성한 한 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경로식당에서는 직원들이 마련한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미니 뷔페로 정성껏 대접했다.

이와 함께 1층 로비에 디저트 코너에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즐기도록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이 지역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복된 노년을 맞이하도록 섬기는 따뜻한 마음을 담았다.

[이동재 사회복지사]

조부모와 함께 숲길을 나들이하고 있다.



꿈빛어린이집

꿈빛 조부모의 날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꿈빛 조부모의 날' 행사를 하였다. 초대장을 받고 자리를 가득 채워준 조부모들은 공연을 보는 내내 따뜻한 미소로 화답해 주었다. 귀여운 울동과 동요, 아름다운 노랫말을 담은 수화공연까지 손자 손녀가 선보인 공연에 눈을 떼지 못하고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

이후 타르트 만들기과 베이킹 활동, 아이들과 영축산 순환길 산책도 가졌다. 평소 친구들과 다니던 숲길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나란히 걷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어르신들은 교사에게 손주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도록 초대해 줘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민들레반 한효정 교사]

시니어 성도들이 양평 세미원에서 자연과 함께 하였다.



성서대학교회

시니어 나들이

어린이 주일(4일), 어버이 주일(11일), 교사 주일(18일) 이어지는 예배 속에서 세대별로 축복하고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5월 1일에는 우리 교회를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어르신 시니어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까운 양평 세미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걷고, 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창조 세계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박효민 목사]

이용자 전원이 롯데월드를 방문해 문화 체험을 즐겼다.



월계지역아동센터

롯데월드 문화체험

13일 롯데월드에서 문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아동센터 34명 전원을 6개 조로 구성, 조원들과 함께 각종 놀이기구를 타고 색다른 시설물까지 경험하며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일행 중에는 놀이공원에 처음 온 아동이 있어 즐거움과 호기심은 물론 놀이기구에 과감히 도전하며 쌓인 내면까지 해소하는 긍정적인 체험의 날이었다.

아동들은 "무서운 놀이기구 타기에 도전하다 보니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해 주는 모습을 통해 연대 의식을 갖게 됐다"며 문화 체험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유아랑 센터장]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손사진을 찾고 있다.



상계백영원

학부모 힐링의 날

어버인 날인 8일 '힐링의 날'로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심을 선물하였다. 아이들은 등원 후 저녁 8시까지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함께 저녁 식사와 간식을 나누고 영화도 감상하는 '유비 데이'로 보냈다. 이에 맞춰 부모님은 퇴근 후 일상을 벗어나 자유롭게 힐링하였는데 "육아 부담이 없어 좋았다. 카페와 쇼핑도 즐거웠고 부부끼리 저녁 식사도 특별했다"라며 100% 만족한다는 결과의 답을 보내왔다.

이벤트 '우리 아이 손을 찾아라'로 부모들은 사진 속 자녀의 손 찾아보 기였고 정답자는 '관찰력이 비상' 오답자에게는 '자라는 속도에 감탄상'과 소정의 선물로 모두를 즐겁게 해 주었다. [맑은반 국민지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진행되는 모습



노원유아종합지원센터

생활 속 안전교육

16일 도담도담나눔터 상계 3, 4동점에서 영유아 자녀 부모 대상으로 '우리 아이를 살리는 생활 속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응급상황시 능동적인 대처 방법을 전하고자 마련하였다.

안전교육 강사와 가정 내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 이론과 영유아 대상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상처 소독 방법 등 응급처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심폐소생술 실습은 열기가 뜨거웠으며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7월과 9월 예정된 영유아를 위한 심폐소생술 부모 교육은 노원구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은경 보육전문요원]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멋진 머리 스타일로 변신시키고 있다.



상계5동어린이집

학부모 참여 '열린 어린이집'

스승의 날을 맞아 학부모가 일일 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는 '열린 어린이집'을 가졌다. 미용사 학부모가 참여해서 아이들과 교사의 머리를 다양한 스타일로 만들어 주었다. 아이들은 달라진 자신과 친구들을 보고 즐거움을 나타내고 변화된 스타일에 기뻐하였다.

참여한 학부모는 장점을 살려 자녀의 친구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한 것이 큰 보람이었고 헌신을 다하는 교사의 노고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정과 연계된 열린 어린이집을 통해 앞으로도 교사와 학부모가 신뢰 관계를 안정적으로 쌓아 나가는 디딤돌이 되었다.

[온누리반 교사 강혜진]

실내에 마련된 물속 체험 놀이장에서 기쁘게 뛰노는 유아들.



늘사랑어린이집

늘사랑 어린이날

4월 30일 어린이날 행사로 2개 교실을 행사 공간으로 정해 진행하였다. '소리 나는 개구리 만들기'와 '물속 체험 놀이'를 가졌고 마당에서는 에어바운스(바이킹, 바나나, 왕궁) 놀이와 '비눗방울 터트리기' 활동이 큰 기쁨을 주면서 신명 나게 이어졌다.

영유아들은 단순한 놀이의 기쁨을 넘어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창의적 발달을 균형 있게 촉진 시켜 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추억을 전하면서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 능력까지 높여 준 뜻깊은 날이 되었다. [신나는반 최호정 교사]

성서대에서 개최된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늘사랑어린이집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13일 한국성서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대학생들에게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기획되었다. 폭력의 개념 및 대처 방법에 관한 전시물까지 설치해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했고 쉽게 이해하도록 퀴즈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다.

특히 캡슐 뽑기 형식의 퀴즈에 많은 관심이 쏠려 효과적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앞으로도 상담소는 한국성서대학교를 비롯한 기관들과 협력을 이뤄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활동을 지속해 갈 예정이다.

[류현숙 상담사]

「성서대학동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동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5년 4월 21일부터 2025년 5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무명	1000만원(운영,간호)	강우정.강 진(이사장)	100만원(운영)
총동문회	700만원(운영)	중앙성서교회(현희철 목사)	100만원(운영)
강해정(설립자 가족)	618만원(운영)	성서대학교교회(반세호 목사)	100만원(운영)
한국장학재단	150만원(장학)	정회진(교직원)	100만원(운영)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7구좌 최윤경 24구좌 이현옥 재학생 및 가족 1구좌 한승천 2구좌 김선옥 교직원 및 가족 5구좌 김미숙 이길형	10구좌 권용준 김정원(영) 어린양교회 7구좌 이정선 효성교회 1구좌 진호숙 홍성일 일 반 1구좌 오미선 진윤승	2구좌 강상래 정 진 단체 및 기관 2구좌 (주)에이스외식산업
----------------	--	---	---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이근중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선정 이수진 이선재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 진 이진경 이철승 이학준 이해럴 이해성 이현우 이현섭 인자혜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장동명 장윤국 장익봉 장익심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하나 정다연 정선도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채중원 천난희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중은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한경순 한상장 한해우 허영숙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설에스더 황보혜영 열매맺는교회 이예람	이근중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선정 이수진 이선재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 진 이진경 이철승 이학준 이해럴 이해성 이현우 이현섭 인자혜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장동명 장윤국 장익봉 장익심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하나 정다연 정선도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채중원 천난희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중은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한경순 한상장 한해우 허영숙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설에스더 황보혜영 열매맺는교회 이예람	이근중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선정 이수진 이선재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 진 이진경 이철승 이학준 이해럴 이해성 이현우 이현섭 인자혜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장동명 장윤국 장익봉 장익심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하나 정다연 정선도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채중원 천난희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중은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한경순 한상장 한해우 허영숙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설에스더 황보혜영 열매맺는교회 이예람	이근중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선정 이수진 이선재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 진 이진경 이철승 이학준 이해럴 이해성 이현우 이현섭 인자혜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장동명 장윤국 장익봉 장익심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하나 정다연 정선도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채중원 천난희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중은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한경순 한상장 한해우 허영숙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설에스더 황보혜영 열매맺는교회 이예람	24만원 이현옥 100만원 이례장학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강성철 김민서 김성아 나예린 박윤경 박한을 백인애 송지민 안성민 양은성 이다원 이동기 이미숙 이상란 이수진 이정윤 이하람 이해정 임동화 장연정 전계화 조윤경 지중배 홍장훈 2만원 강은덕 강현중 곽은혜 권영진 권윤주 김미숙 김미옥 김선미 김선옥 김승희 김정숙 김지영 김지혜 김창환 김형정 김형태 김효선 문순용 문혜진 박영규 박유순 송동식 송세희 신동호 이경민 이동훈 이명영 이선경 이선미 이상영 이승진 이승찬 이유구 이은영 이정민 이혜란 임정용 장영순 전옥순 전옥순 정인숙 조윤희 최경애 최영숙 최유승 함은애 3만원 박보병 배정훈 전희문 최정규 황미숙 5만원 권오길 김희선 박선희 박인규 성정자 손미연 송희경 안종현 윤수호 이재현 이혜영 정주화 한선희 10만원 김명자 장은정 20만원 김도래 1000만원 김소훈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곽하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중현 김지환 김지효 김준하 김형중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명우 박묘서 박연지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양승원
----------------	---	---	---	---	--

기부자 명단

이지민 임수아 장경순 전광선	1만원 김복례 한미희	2만원 한지화	2만원 강명용 권소영 김미금 김옥석
전귀선 정현아 진달래 최미영	일일교회	3만원 임윤창	김동석 김성래 김윤숙 박기숙
허윤민 오시다교조	1만원 서효정	어린양교회	박명숙 박수명 박재균 서병준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삼일성서교회	7만원 이정선	서성일 안은숙 이일신 이재한
권서후 김남준 김세원 김창호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한금순	일동성서교회	이태일 정주아 정 진 조혜령
문지예 민경은 박예진 배민정	서문교회	1만원 심미영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장길정	1만원 강선에 윤인호	2만원 박문수	
장지순 전영호 정순애 정은상	20만원 서문교회	3만원 왕순희	
조철남 최난영 한상만 한정숙	성서대학교교회	장자교회	3만원 박미라 장문석
3만원 고윤정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9천원 박지숙 배주은 오경모 이경한	4만원 권정숙	4만원 정형재
신재운 양희정 여진희 유수연	정중송	5만원 장자교회	5만원 석지현 이천하 주은자
윤해진 이소연 정지숙 추연진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는 이대영	주향교회	10만원 김옥례 서미혜
4만원 김덕원	이대한 이지수 이진호	1만원 유병우	20만원 류동원 박경혜
5만원 구광면 김미숙 김병수 김성호	1만8천원 고경숙 고미숙 권은정 김문정	2만원 정우진	40만원 박순정
김원빈 김현동 박상민 신지수	김상은 김성은 김성진B 김성철	중앙성서교회	
양단아 유미나 이상일 장성희	김애숙 김인영 김일선A 김일선B	1만원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단체 및 기관
장정순 현우석	김희현 민영빈 박상희 박영숙	최영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6만원 권순범	박영신 박주형 박천순 배성준	2만원 신영옥 강영애, 신한성	/늘푸른교회/맘키즈푸드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김소희 김정숙	서영우 서 훈 석경순 송형기	이준구, 안춘자	/목양교회/무진인터내셔널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안봉숙 양태환 용정자 유부자	3만원 권순호 김덕규 오근수	/주님순교회/행복한교회
김형미 문무열 배진형 신금주	윤재필 이경미 이관영 이무현	5만원 김옥자 이경식 한금례	(주)에이스외식산업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이소정 이승림 이영희 이정숙	중양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로회	/도새기짚/동신자원
이성아 이소정 이슬기 장인순	이정자 이종옥 이주현 이진화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바르고복된교회/별방교회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장근문 장기영 장은정 장진희	중양성서교회 바울선교회	3만원 꿈꾸는교회/우리교회
최옥열 최은희 홍소윤	정나영 조병하 최영태 최용석	15만원 이혜선	/주식회사 이수전기
김정원(신) 김정원(영)	최인숙 한성실 한순애 허진순	24만원 황인돈, 김순자	4만원 플랜팅스즈
11만원 최지은	황서린 황시은	퇴계원제일교회	5만원 다드림교회
12만원 김웅기	2만7천원 박태수 선종인	1만원 유재란	/본도시락 증거집/사랑샘교회
13만원 김덕현 김중완	3만6천원 김동석 김민자 김배열 김봉춘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예일에드워드/천성교회
15만원 강규성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김상진 김은숙 김인자 박인숙	평화교회	/한일성서교회/행진교회
한진호	반해빈 반해성 심화성 임용택	1만원 안종민 안지선	10만원 (주)바다나라
20만원 김승욱 김창원 박 선	정선희	풍암교회	/ (주)이레E&C이레디자인
25만원 이강종 임지영	4만5천원 김영현 김하준 김효정 박은경	1만원 윤은정	/가성교회/구리중앙교회
40만원 박태수	유형창 최강희	함평대동교회	/도봉성산교회/두암산업(주)
45만원 최선희	5만4천원 강우진 김현석 반세호 송재철	1만원 김희경	/만나교회/미사목인교회
50만원 최정권	이숙영 이정미 최선희	화도드림교회	/사록교회/성복중앙교회
100만원 정희진 강우정, 강 진	7만2천원 김유미 박선하	1만원 권순실	/의정부제일교회
618만원 강혜정	9만원 강성훈 권경만 권태완 길용희	5만원 화도드림교회	/전주서부중앙교회
부설기관	김원태 노봉환 박세건 박은유	효성교회	/청평교회/평안교회(신병수)
1만원 김은지 김지은 김하예 김효진	서수희 이경신 이은실 최대만	1만원 진경숙 진효숙 홍성일	20만원 전하석/(주)소원기건
유희주 이유리 이은정 임재택	한진호		/인천제2교회
호한나	100만원 성서대학교교회	일 반	30만원 (주) 주 안
2만원 윤종찬 진양희 허성보	성서선교회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150만원 한국장학재단
3만원 구세란 권효진 문유나 박천순	2만원 금춘성서교회	김명호 김미라 김법설 김양권	700만원 총동문회
변송이 안미희 오윤아 유정현	3만원 푸른동산교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1000만원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교회
장나혜	5만원 동두천성서성김교회	노은경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5만원 박연희 이인경 이지연	월계성서교회	박영희 박지성 서민석 송유정	
7만원 김선화	10만원 다빛교회 삼일성서교회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현숙	
10만원 권정아 박빛나 장수진 조지선	100만원 중앙성서교회	유금례 유해연 유화실 이관현	
15만원 김화영	세빛교회	이사랑 이성영 이성태 이성희	
20만원 김신덕	5만원 세빛교회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상	
35만원 오동준	수원교회	임숙자 조동빈 조목장 조연상	
권선제일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설 홍성호	조여원 조은혜 진윤송 최경숙	
1만원 이상규	어린양교회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황영수	
동광교회	1만원 김정희	한국인재인증센터	

소계(20250421~20250520) 68,664,124
누계(20250301~20250520) 179,218,694

한국성서대학교 5월 『발전후원금』	무 명 10,000,000원 / 총동문회 7,000,000원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17,000,000원)	
약정 후원자 (합계 33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3,960,000원)	
20구좌 교회를세우는교회(동문) / 10구좌 백승우(동문) / 5구좌 최은희(동문) / 3구좌 하희수(교직원)	
2구좌 문순용(학부모), 이동훈(학부모), 이선미(학부모), 김덕현(교직원), 박예진(교직원), 이재은(일반), 정진(일반)	
일시납 누계(2025.3.1.~2025. 5.23) 44,157,700원 / 약정자 누계(2025.3.1.~2025.5.23) 154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18,480,000원	